

영아기질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 차이 및 기질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관계

Relations Between Infant Temperament by Caregivers'
Perceptions and Infant-Caregiver Interactions

박수빈(Soo-Bin Park)¹⁾

김숙령(Sook-Ryong Kim)²⁾

ABSTRACT

Subjects were 78 12- to 35- month old infants, their mothers, and their teachers. Instruments included the Revised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Y. H. Choi 1990) and the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M. K. Hong 1997; S. K. Kim 1999).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infant temperament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Infant-mother interaction differed by infant temperament in that mothers had high scores with easy infants but low scores with difficult children. On the other hand teachers maintained high interactions with difficult infants in the case of infant's rhythmicity. Infant-teacher interaction correlated with such teacher variables as teacher-infant ratio, teachers' academic backgrounds and working hours.

Key Words : 영아(infant), 기질(temperament), 지각(perception), 양육자(caregiver), 상호작용(interaction).

I. 서 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어머니와 자녀 양자간 주고받는 서로의 영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발달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같은 어머니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다른 발달을 보

이는 것 또는 같은 어머니라도 자녀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녀의 행동과 발달이 일방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영아의 특성인 기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Birth와 Chess와 Thomas(1968)는 아기가 4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5년 동안 종단적 연구(NYLS :

¹⁾ 목련어린이집 교사

²⁾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o-Bin Park,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Doma 2 Dong, Seogu, Daejeon 302-735, Korea E-mail : beanhy@hanmail.net

New York Longitudinal Study)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을 까다로운(difficult) 영아, 더딘(slow-to warm-up) 영아, 순한(easy) 영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이후 Carey와 McDevitt (1978)는 영아 기질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95문항의 6점 척도로 된 영아 기질 설문지를 제작하여 영아 기질 유형을 분류하였다. 영아기에 적응성이 낮고,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하며, 낮은 사람이나 장소와 접하면 회피하고, 정서 표현이 격렬하며, 부정적 기분을 많이 보이는 영아를 “까다로운(difficult) 기질”이라고 하였다. 까다로운 기질과 반대되는 특성은 “순한(easy) 기질”이라고 하였고, “더딘(slow-to warm-up) 기질”은 새로운 자극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그 표현 정도가 격렬하지 않고 적응성도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기질의 정의는 접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Chess와 Thoma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태학적 접근은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기질은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Birth 등 (1968)은 영아의 기질이란 영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행동양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개별적인 성향이며, 기질이 선천적이지만 고정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환경의 기대, 요구 등이 개인의 능력, 동기, 행동 양식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건전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영아의 환경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영아의 발달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부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진

다(김연옥, 2002; Buss & Plomin, 1984). 특히 영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환경인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자녀의 관계가 부정적일 때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이후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냈다(Bates, 1980).

이렇게 영아의 기질과 양육자의 상호작용 태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졌으나 영아의 기질과 양육자의 상호작용 태도 중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전미경, 2003; Milliones, 1978).

양육자의 상호작용 태도는 영아의 기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Belsky 등(1984)은 영아가 어머니가 돌보기 어려운 특성이더라도 어머니의 정신이 건강하고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영아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Gwendolyn(1994)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부모가 7년간의 부모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자녀들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며, 부모도 역시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기본 성격으로 여겨 자녀의 행동을 타하는 것이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의 기질은 긍정적인 기질 특성으로 재구성되어 유아와 환경이 보다 조화로워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영아의 기질은 양육자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게 하는가? Chess와 Thomas(1977)는 3개월된 영아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면접을 통해 중단적 연구를 한 결과 온순한 영아의 어머니는 까다로운 영아의 어머니보다 자녀로부터 좋은 어머니로 인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온순한 영아의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해 힘이 덜 든다고 지각하였고 이것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Dunn과 Kendrick(1980)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기질에 따라 모자간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반응강도가 높은 영아일수록 더 많이 보채며, 부정적인 기분을 표현하는 영아는 어머니 가까이에서 우두커니 앉아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어머니의 도움을 적게 받았다.

영아의 기질과 양육자의 상호작용 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들이 오히려 어머니의 몰입된 접촉을 더 많이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최영희, 1997). Crockenberg와 Smith(1982)는 신생아기에 성급했던 영아가 3개월 때의 관찰에서 어머니의 몰입된 접촉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기질이 양육자가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자녀의 까다로움이나 문제행동을 아이다운 특성으로 보거나 까다로운 아이에게 더욱 잘 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자녀에게 더 많은 반응을 보일 것이나, 순한 기질이라도 부모가 그러한 기질을 주도성이 없는 기질이라고 염려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대할 수도 있다(남혜순, 2003; 최영희, 1997).

NYLS 연구자들은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영아의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이 부모이므로 부모를 통한 기질 조사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시각의 학자(Bates, 1980)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측정할 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질 측정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3의 관찰자에 의한 측정을 제안하였으나, 제3자의 관찰의 경우 짧은 시간동안 관찰한 것이 영아의 기질 특성이 될 수 없으며, 영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을 가지게 되었다.

Rothbart(1981)는 어머니의 측정과 부모가 아

닌 제2의 양육자 측정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두 명이 서로 다른 시간에 아기를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기질을 비슷하게 평정하고 있다고 하였다(이은경, 2002).

제2의 양육자는 영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최근에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시설에 맡겨진 영아가 증가하면서 시설의 교사가 제2의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교사는 제3의 관찰자와는 달리 영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아를 가까이 접하고 있으므로 영아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는 달리 객관적인 평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함께 교사의 지각을 알아보고,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기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이 비슷하다면 어머니의 평정에 의한 영아의 기질 평가가 객관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선행연구에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결과에 근거하여, 영아의 기질이 제2의 양육자인 교사와의 상호작용과도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어머니와 자녀의 경우는 1:1의 상황에서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상호 영향력이 클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는 같은 양육자의 입장이라고 해도 한 교사가 여러 명의 영아를 상대로 관계를 가진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영아와의 상호 영향력이 적을 수 있다. 특히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사의 배경 변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신은주, 1993; 홍근민, 1997)에 의하면 교사 대 영아의 비율, 교사의 학력, 근무시간 등이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의 관계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제2의 양육자로서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도 영아의 기질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사의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양육자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은 어떠한가?

1-1.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은 어떠한가?

1-2. 교사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양육자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과 영아-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1.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과 영아-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2. 교사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과 영아-교사와의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소재한 8개소의 어린이집에 채용 중인 12-35개월 영아와 어머니 78쌍과 각 영아의 담임 교사 20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대상 영아의 평균 연령은 26개월이었으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2-13개월은 1 : 2, 14-15개월은 1 : 4, 16-25개월은 1 : 5, 26-27개월은 1 : 6, 29-32개월은 1 : 7, 33-35개월은 1 : 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20-35세가 62명(7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25명(32.1%), 2-3년제 대졸 21명(26.9%), 4년제 대졸 25명(32.1%)으로 고루 분포되었으며, 대학원졸은 4명(5.1%)으로 비교적 적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63명(80.8%)으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에 있어서는 25-30세가 11명(5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기혼보다는 미혼이 14명(70.0%)으로 더 많았다. 교사 경력은 2-3년이 9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교사는 4-10년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2년제 대졸이 10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졸이 6명(30%), 고졸이 4명(20%)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기질 설문지

양육자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에 대한 설문지는 Fullard, Carey와 McDevitt(1984)의 영아 기

질 설문지(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 : TTQ)를 최영희(1990)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영아 기질의 9가지 영역(활동수준,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지구성, 주의분산도, 반응역)을 질문하는 97개 문항으로 되어있는 6점 척도이다. 그 중에서 영아의 기질유형 분류에 사용되는 차원은 5가지 영역(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차원들에 관한 문항을 영아의 기질 설문지에 사용하였다.

기질 집단의 분류기준은 Carey와 McDevitt (1978)를 따라서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5개 기질 차원 중 4개 이상 차원의 점수가 평균보다 작고, 한 차원의 점수가 평균보다 크더라도 그 차이가 1표준편차를 넘지 않는 경우를 순한기질로 분류하였다. 기질차원 중 반응강도를 반드시 포함한 4개 이상 차원의 점수가 평균보다 크되, 2개 이상 차원의 점수가 1표준편차 보다 큰 경우를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경우를 중간 기질로 분류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기질에 속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순한기질에 속한다.

신뢰도는 최영희(1990)가 우리나라 영아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Cronbach's α 로 산출한 결과 $\alpha =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 = .87$ 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설문지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이므로 교사를 포함하는 본 연구를 위해 교사용으로도 타당하지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분'에서 한 문항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제외하고 교사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규칙성(11문항)은 $\alpha = .83$, 접근성(12문항)은 $\alpha = .85$, 적응성(9문항)은 이때 $\alpha = .89$, 반응강도(10문항)는 $\alpha = .84$, 기분(13

문항)은 $\alpha = .87$ 이었다. 따라서 교사용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 양육자-영아 상호작용 설문지

양육자-영아 상호작용 설문지는 강숙현(1994)이 Abbott-Shim과 Sibley(1987)에 의해 개발된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를 한국판으로 수정한 것을 영아용으로 재수정한 홍근민(1997)의 척도와 함께 김승경(1999)의 어머니 민감성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상호작용(8문항),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4문항),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5문항), 양육자의 긍정적 태도(6문항),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 독려(3문항), 그리고 민감한 반응(18문항)이다.

설문지가 어머니용과 교사용으로 타당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용에서는 '민감한 반응'에서 한 문항이, 교사용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에서 한 문항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고, 교사용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인 영아, 어머니, 그리고 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해서 영아기질의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준거에 의해 영아의 기질 유형을 분류한 후, 양육자가 지각하는 비율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을 교차분석하고, 영아 기질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있는지 χ^2 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3을 위해서는 영아 기질의 하위 영역이 양육자의 상호작용과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끝으로, 연구문제 4는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하였다.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1인당 응답한 영아의 수가 1명 이상이어서 교사변인을 반복측정 변인으로 하여 F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아 기질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

1) 영아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각 기질 영역별 점수를 이용한 기질 집단 분류법에 의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 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에 의해 지각된 영아의 기질은 중간기질이 71.8%, 순한기질이 20.5%로 많았고, 반면 까다로운 기질이

<표 1>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 집단 분포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순한기질	16	20.5	20.5
중간기질	56	71.8	92.3
까다로운 기질	6	7.7	100.0
합계	78	100.0	

라고 본 비율은 7.7%에 불과했다. 즉, 까다로운 기질 집단을 제외한 순한기질 집단과 중간기질 집단 유아를 합하면 92.3%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 기질에 대한 교사의 지각

각 기질 영역별 점수를 이용한 기질 집단 분류법에 의해 교사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 집단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교사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 집단 분포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순한기질	19	24.4	24.4
중간기질	43	55.1	79.5
까다로운 기질	16	20.5	100.0
합계	78	10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에 의해 지각된 영아의 기질은 중간기질이 55.1%, 순한기질이 24.4%로 많았고, 까다로운 기질은 20.5%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기질 집단을 제외한 순한기질 집단과 중간기질 집단 유아가 79.5%의 비율을 보여 92.3%의 비율을 보인 어머니 집단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2. 영아 기질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 차이

위에서는 영아기질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두 집단의 전체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동일한 한 영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을 살펴보았는데, 두 양육자 간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동일한 영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교사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3〉 영아 기질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 차이

	교사가 지각한 영아 기질 집단			전 체	
	순한 기질	중간 기질	까다로운 기질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 기질 집단	순한기질	2	11	3	16
	중간기질	16	29	11	56
	까다로운 기질	1	3	2	6
전 체		19	43	16	

$\chi^2=2.9, df=4, N.S$

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보다 교사가 영아를 까다로운 기질로 보는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6명 대 16명)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교사가 영아를 까다로운 기질로 지각하는 비율은 20.5%로 7.7%에 불과한 어머니 집단보다 높았다.

3. 영아 기질과 영아-양육자 상호작용 관계

1) 영아기질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관계

영아 기질의 하위 차원들과 영아-어머니 상

호작용의 하위영역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영아 기질 차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긍정적 기분을 많이 지닐수록 높았으며, 반응 표현이 격렬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언어적 모델링은 영아가 새로운 자극에 접근하려 할수록, 새로운 상황에 적응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기분을 많이 지니며, 반응 표현이 격렬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은 영아가 새로운 자극에 접근적일수록, 새로운 상황에 적응성이 높을

〈표 4〉 영아 기질차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과의 관계

	영아 기질영역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 분
긍정적 상호작용	-.268*	-.073	-.268*	.262*	-.298**
어머니의 언어적 모델링	-.103	-.333**	-.354**	.347**	-.343**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048	-.261*	-.437**	.176	-.381**
어머니의 긍정적 태도	-.152	-.104	-.468**	.237*	-.198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 독려	-.158	-.224*	-.288*	.247*	-.283*
민감한 반응	-.174	-.120	-.383**	.417**	-.324**

* $p<.05$ ** $p<.01$

〈표 5〉 영아 기질차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과의 관계

	영아 기질영역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 강도	기 분
긍정적 상호작용	.249*	-.089	-.039	-.009	.097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165	-.203	.022	.124	-.010
영아-교사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239*	-.080	-.027	.086	.039
교사의 긍정적 태도	.122	-.283	.007	.068	.013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 독려	.151	.009	-.088	.019	.045
민감한 반응	.161	-.282*	-.133	.022	-.060

* $p < .05$

수록, 긍정적 기분을 많이 지닐수록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긍정적 태도는 영아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성이 높을수록,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 독려는 영아가 새로운 자극에 접근적일수록, 새로운 상황에 적응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기분을 많이 지닐수록,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민감한 반응은 영아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성이 높고, 긍정적 기분을 많이 지니며,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높았다.

2) 영아기질과 영아-교사 상호작용 관계

영아 기질의 하위 차원들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하위영역 사이에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영아 기질차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 영역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사의 상호작용 태도의 하위 영역 중 긍정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그리고 민감한 반응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왔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기질 영역 중 규칙성($r=.249, p<.05$)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도 규칙성($r=.239, p<.05$)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민감한 반응은 접근성($r=-.282, p<.05$)과 부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교사 1인당 영아수에 따른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교사 1인당 영아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는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교사의 긍정적 태도, 민감한 반응이었다. 교사 1인당 영아수에 따라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F=6.60, p<.01$), 교사의 긍정적 태도($F=5.48, p<.01$), 그리고 민감한 반응($F=3.28, p<.05$)에 있어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표 6〉 교사 1인당 영아수에 따른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의 차이(N=78)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	교사 1인당 영아수	N	M	F	Scheffé
긍정적 상호작용	1 : 4 미만	6	4.05	.90	
	1 : 5-1 : 6	34	3.97		
	1 : 7 이상	38	3.85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1 : 4 미만	6	3.79	6.60**	ab
	1 : 5-1 : 6	34	4.10		a
	1 : 7 이상	38	3.75		b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1 : 4 미만	6	3.87	.28	
	1 : 5-1 : 6	34	3.77		
	1 : 7 이상	38	3.74		
교사의 긍정적 태도	1 : 4 미만	6	3.64	5.48**	ab
	1 : 5-1 : 6	34	3.84		a
	1 : 7 이상	38	3.67		b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 독려	1 : 4 미만	6	4.00	.16	
	1 : 5-1 : 6	34	4.08		
	1 : 7 이상	38	4.10		
민감한 반응	1 : 4 미만	6	3.75	3.28*	ab
	1 : 5-1 : 6	34	3.89		a
	1 : 7 이상	38	3.75		b

* $p < .05$ ** $p < .01$

〈표 7〉 교사 학력에 따른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의 차이(N=78)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	교사의 학력	N	M	F	Scheffé
긍정적 상호작용	고졸	12	3.92	8.79***	ab
	2-3년제 대졸	45	3.77		a
	4년제 대졸	21	4.24		b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고졸	12	3.88	6.16**	ab
	2-3년제 대졸	45	3.79		a
	4년제 대졸	21	4.18		b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고졸	12	3.75	1.26	
	2-3년제 대졸	45	3.72		
	4년제 대졸	21	3.88		
교사의 긍정적 태도	고졸	12	3.71	5.82**	a
	2-3년제 대졸	45	3.69		a
	4년제 대졸	21	3.93		b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 독려	고졸	12	3.86	2.49	
	2-3년제 대졸	45	4.13		
	4년제 대졸	21	4.10		
민감한 반응	고졸	12	3.69	6.92**	a
	2-3년제 대졸	45	3.77		a
	4년제 대졸	21	3.96		b

** $p < .01$ *** $p < .001$

사후검증 결과 1 : 5-1 : 6집단과 1 : 7 이상 집 1 : 5-1 : 6집단의 평균이 1 : 7 이상 집단보다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높았다.

다음은 교사 학력에 따른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 7>에서 보듯이, 교사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태도는 긍정적인 상호작용($F=8.79, p<.001$),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F=6.16, p<.01$), 교사의 긍정적 태도($F=5.82, p<.01$), 그리고 민감한 반응($F=6.92, p<.01$)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교사의 긍정적 태도와 민감한 반응을 제외하고 모두 2년제 대졸과 4년제 대졸 간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교사의 긍정적 태도와 민감한 반응은 고졸과 4년제 대졸, 2-3년제

대졸과 4년제 대졸 간에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는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F=7.19, p<.001$), 긍정적인 태도($F=5.42, p<.01$), 그리고 민감한 반응($F=7.14, p<.001$)이었다.

유의미한 집단 차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 결과 언어적 모델링은 8시간 미만과 9-10시간 미만, 9-10시간 미만과 11-12시간 미만 집단간에 차이

<표 8> 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의 차이(N=78)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	교사의 근무시간	N	M	F	Scheffé
긍정적 상호작용	8시간 미만	4	4.25	1.41	
	9-10시간 미만	10	3.99		
	10-11시간 미만	12	4.05		
	11-12시간 미만	52	3.85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8시간 미만	4	3.75	7.19***	a
	9-10시간 미만	10	4.43		b
	10-11시간 미만	12	4.00		ab
	11-12시간 미만	52	3.80		a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8시간 미만	4	3.50	1.94	
	9-10시간 미만	10	3.92		
	10-11시간 미만	12	3.90		
	11-12시간 미만	52	3.72		
교사의 긍정적 태도	8시간 미만	4	3.67	5.42**	a
	9-10시간 미만	10	4.07		b
	10-11시간 미만	12	3.68		a
	11-12시간 미만	52	3.72		ab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 독려	8시간 미만	4	3.83	2.90	
	9-10시간 미만	10	4.33		
	10-11시간 미만	12	4.19		
	11-12시간 미만	52	4.03		
민감한 반응	8시간 미만	4	3.72	7.14***	a
	9-10시간 미만	10	4.11		b
	10-11시간 미만	12	3.82		ab
	11-12시간 미만	52	3.75		a

** $p<.01$ *** $p<.001$

가 있었다. 평균을 살펴볼 때 9-10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점수가 높았고, 8시간 미만과 11-12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8시간 미만과 9-10시간 미만, 9-10시간 미만과 10-11시간 미만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흥미롭게도 9-10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상호작용 태도 중 민감한 반응은 8시간 미만과 9-10시간 미만, 9-10시간 미만과 11-12시간 미만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도 9-10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교사의 민감한 반응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 기질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 차이 및 영아기질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알아보고,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기질을 순한기질과 중간기질로 지각하는 경향이 많으며, 까다로운 기질로 지각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적게 표집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머니가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라도 까다롭지 않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요소가 기질 평정에 적용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이 순한기질과 중간기질이 75.5%로 나타난 유명희(1990)와 82.5%로 나타난 최영희(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교사의 경우는 영아의 기질을 중간기질로 지

각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순한기질과 까다로운 기질은 각각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보다는 까다로운 기질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어머니보다 교사가 더 정확하게 지각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1:1의 관계가 아닌 교사 1인당 여러 명의 아이들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기질에 가까운 중간기질의 아이들까지도 까다로운 기질로 지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에서 유의할 점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전체적 집단 차이를 조사한 결과일 뿐, 동일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차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일한 영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에서는(연구문제3), 어머니와 교사간에 영아기질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 교사 모두가 영아의 기질 평정을 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한편 영아의 기질과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태도 간에는 많은 영역에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아의 기질과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태도가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김연숙, 2002; 유명희, 1990; Dunn & Kendrick, 1980)과 일치한다. 반면, 영아의 기질과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태도 간에는 비교적 적은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영아기질의 하위영역 중 규칙성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태도의 모든 하위 영역들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영아-교사 상호작용 태도의 하위 영역과는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태도 점수는 영아의 기질이 순한기질일 때 높았다. 그러나 영아-교사 상호작

용 태도 점수는 영아의 기질이 까다로운 기질 일 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영아들이 오히려 몰입된 접촉이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들(유명희, 1990; Crockenberg & Smith, 1982; Bates, 1980)과 일치한다.

한편,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이 영아의 기질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적게 나타난 반면에, 교사1인당 영아수, 교사의 학력, 그리고 근무시간 등의 요인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기질 특성상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에게는 이후 부정적인 발달과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를 위해서 교사의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어머니와 교사들이었다. 따라서 모든 영아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시설에 다니는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 기질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 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의 수가 너무 적어서 교차분석시 cell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교사의 경우는 1인당 평가해야 할(답임을 맡은) 영아의 수가 기관에 따라 2-6명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였는데, 일부 영아와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교사가 각 영아의 기질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확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 대 영아의 수가 많은 기관일

경우 한 교사가 평정하는 영아의 수를 2, 3명 이내로 제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숙현(1994).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의 이해와 활용, 서울 : 동문사.
- 김승경(1999). 영아-어머니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옥(2002).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특성이 유아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1993).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유아-양육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명희(1990).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2002).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경(2003).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1992). 아동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3.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경향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 _____(1997).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99-109.
- 홍근민(1997). 영아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에 따른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

-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bott-Shim, M., & Sibley, A.(1987). Assessment profile early childhood programs. Atlanta, G.A. : Quality Assist, Inc.
- Bates, J. E.(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 Palmer Quarterly*, 26, 299-319.
- Belsky, J., Gamble, W., & Robins, E.(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competence : Toward a contextual theory. In M. Lewis(Ed.). *Beyond the Dyad*, New York : Plenum.
- Carey, W. B., & McDevitt, C.(1978). The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3-7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 245-253.
- Crockenberg, S. B., & Smith, P.(1982). Antecedents of mother - 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irritability in the first three month of lif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 105-119.
- Dunn, C., & Kendrick, C.(1980). Studying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vention : Comparison of Interview and Observation.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22, 484-496.
- Carey, W. B., Fullard, W., & McDevitt, S. C.(1984). Assessing temperament in one to three yours of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 205-217.
- Gwendolyn, M.(1994). *Non-Clinical Interventions for Families with Temperamentally Difficult Children*. (CA : Berkeley) (ERIC Reproduction Document Service No. ED 387 257)
- Milliones, J.(1978).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49, 1255-1257.
- Rothbart, M. K.(1981). Mear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Birch, H. G., Chess, S., & Thomas, A.(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 in Children.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2005년 2월 12일 투고 : 2005년 5월 5일 채택